

나의 학문 나의 반성

천시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I.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의 우리나라는 미군정하에 있었으니, 학제도 미국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당시의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함에 따라 대구사범학교(1943년 전문학교령에 의하여 본과 설치)도 사범대학으로 승격됨에 나는 2년의 초등교사직을 그만 두고 진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학 과정을 5년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과도(過度)조치로서 1년의 예과과정을 거쳐서 학부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국문과'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그것을 맡을 선생도 없고, 지원한 학생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광복된 조국의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 국어교사 양성 과정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영문과와 사회과학과를 지망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몇몇 학우들을 설득하여 10명의 동지자를 얻어 연서명으로 과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것이 내가 국문과와의 만남의 인연이었다.

또한 국어학을 하게 된 것은 사범학교 재학시절 일본어 선생이었던 모리 다 다케시(森田武)란 분의 영향이 컸었다. 그 분은 일본 국어학을 전공하여

일본어사(日本語史) 연구에 열중하고 첩해신어(捷解新語)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듯하여 나는 그 분의 지시에 따라 가끔 어휘 카드도 만들었고 筆寫도 해 드렸다. 그런 인연으로 敗戰후 그 분이 떠날 때 ‘앞으로 이 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言語學原論』(Saussure의 『一般言語學講義』를 小林英夫가 번역), 小倉進平의 『朝鮮語學史』, 『朝鮮語方言의 研究 上·下卷』, 文世榮 『朝鮮語辭典』을 나에게 주고 떠났다. 그 당시의 나로서는 이들 책의 소중함을 몰라 그냥 받아 놓기만 했었는데 후일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을 미처 몰랐었다.

국문과가 설치된 후, 金思燁선생님과 李在秀선생님을 전임교수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으나 국어학 관계 교수를 모실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方鍾鉉선생님과 金亨奎선생님께서 한 학기분의 집중 강의를 해 주셔서 국어학에 대한 열의를 높이게 되어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3학년을 마친 후 무작정 상경하여 東崇洞과 乙支路5가를 왕래 하면서 무허가 청강생 노릇을 남몰래 했었다. 李熙昇선생님의 ‘국어학개설’을 듣고 우리말의 깊이를 깨달았으며, 李崇寧선생님의 ‘국어음운론’ 강의에서는 온 칠판에 쓰여진 영·독·불어로 된 술어에 질리도록 압도되어 필기조차도 못하였으나 ‘學’이라는 것이 심오하고도 준엄함을 뼈저리게 느껴 두려움마저 들었다. 덕분에 학적 상실이 되어 졸업은 일 년이 늦어졌지만 나로서는 귀중한 일 년이었다.

II.

지방 신설 대학이라 도서관도 충실치 못하여 자료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경북지방의 班村을 돌며 서책 조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尙州 豐壤趙氏 댁에서 『朴通事 上』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崔世珍本이었다. 16세기 국어의 귀중한 자료로서 영인되어 배본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집 행각에서 ‘방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해방 직후 나는 安東출신 친구와 안동에 간 일이 있었

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친구는 衣冠을 정제한 중년사람에게 무릎을 꿇혀 90도 절을 하면서 ‘아제이껴, 저염 자셨니껴?’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귀에 담은 安東方言의 첫 경험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그 친구의 인상이 다르게 보여졌다. 지금으로서는 대수롭잖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평소의 대화에서 들을 수 없었던 불의의 언어적 기습에 적당황스러웠었고, 그것이 ‘方言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을 먼 후일에 깨달았다. 그리하여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서적 조사를 하는 한편, 대화에 나타나는 방언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더니 語調나 語法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것을 종합해 보니 그것으로 ‘方言區劃’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慶北地方의 方言區劃’(1965)이라는 작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경상도 방언은 타지방에 비하여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경북지방에서 의문종지형 어미가 3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고 그 역사적 배경이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경상도 방언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경북방언의 형태론적 고찰’(1973)을 시도해 보았으며 다시 ‘의문 添辭’(1975)에 대하여도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방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臨地調查이고 그것도 정밀 조사를 통하여 言語層位의 역사적인 탐구를 요하는 작업이니, 막대한 비용과 시일이 필요하다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당시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를 충족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통신 조사나 자기 출신지의 回顧적 방법에 의한 조사밖에 할 수 없어 개인의 조사 작업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졌다. 그러던 중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이 작업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경상도 방언은 몇가지의 주목할 만한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타지방에 비하여 이 지방은 ‘모음수(母音數)’가 적고 語調(accent, intonation)가 독특하여 그 起源이 궁금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이라 여겨진다.

III.

일찍이 李熙昇 선생님의 ‘國語學概說’ 어휘론을 감명 깊게 수강하면서 우리 말의 표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재인식하게 되어 흥미와 탐구의 가치성을 절실히 느꼈던 터에 1958년 新門路 汎韓書籍에서 1957에 재판된 S.Ullmann의 ‘*The Principles of Semantics*’란 책을 구할 수 있어 그 기쁨을 형언할 길이 없었다. 또한 그해 말에 卍세주 문고판 Pierre Guiraud의 ‘*La Sémantique*’의 일역본 『의미론』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1950년대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만을 표방하는 미국식 ‘구조주의 언어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F.de Saussure의 제네바학과와 N.Trubetzkoy의 프라그 학과의 構造主義에 입각한 ‘음운론’과 문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학 조류 속에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의미’의 문제는 언어학의 정당한 분야로서 인정 받기가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 때에 울만의 의미론은 언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신선한 자극제였다. 소쉬르가 근대 언어학의 鼻祖라면 울만은 의미론 연구의 선구자였다. 이미 이희승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불란서의 언어학자 M.Bréal이나, A.Darmesteter의 의미변화에 대한 방법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틀을 제시해 준 울만에 친근감이 갔다. 그는 미국의 構造言語學이 표방하는 共時的인 접근법 一邊倒的인 경향에 대하여 通時的 연구를 통하여 언어의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이 ‘意味論’의 연구에 매료되어 S.울만과 P.기로의 책들과 일년 동안 씨름하며 동조자를 구하기 위해 油印本으로 ‘意味論’(1959)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지금에 와서 보면 매우 유치한 것이었지만 나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으로 언어학에서의 의미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았으며 어휘와 통사의 의미적 기능이 무엇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아무리 자신의 공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만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생나무같은 시절의 雉氣어린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구조

언어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라과 구조언어학자 중에서도 구조화 과정에 있어, 음운론이나 문법론은 형식적인 구조화가 용이함에 비하여 ‘의미론’은 심리적인 현상이라 체계적인 구조화가 곤란하여 저항을 느끼고 있는 터에 독일 언어학자 Hugo Schuchardt는 고전언어학의 전통적 도식인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이들의 뒷전에 있는 語의 의미변화의 연구>에 반기를 들어 ‘우리들은 결국 문법의 3구분이란 생각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존재하는 문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의미작용인 것이다’라는 말에 고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론을 연구하는 학자가 점점 늘어나 교재용으로도 쓸 수 있는 ‘國語意味論’(1971)을 金宗澤교수와 공저로 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 N.Chomsky의 변형생성 이론의 제기 또는 발전으로 통사론과 의미론 연구가 눈부시게 빛났으며, 일찍이 보지 못했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통사론과 의미론은 그 경계조차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 생성의미론자들 중에는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여 술어마저 ‘Semantax’라 부르게 되는 등, 각종 의미론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들 의미론에 대하여 정리 파악하는 작업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20년간에 다루어진 ‘의미문제’와 그 주변에서 영향을 끼친 항목들을 살펴 ‘最近 意味論의 動向’(1978) 속에 담아 보았다.

이로써 볼 때 의미론이 언어학에서 소외되었던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언어학의 본령인 것처럼 됨과 아울러 올만, 기로 등의 고유의 언어학적 의미론자들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생겨 촘스키 출현의 이전과 이후는 현저하게 그 양상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촘스키는 변형문법에서의 의미론은 개개의 단어의 意味分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어휘적 구조체계 위에 통사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는 의미의 체계와 구조의 연구를 알뜰히 해 놓아야 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착실한 의미 구조의 분석 작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래서 語의 차원에서는 ‘多意性的 의미 분석’(1977)을 시도했고, 語彙의

차원에서는 ‘類意性的 意味분석’(1979)을 시도해 보았다.

의미의 구조 분석은 학자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最近意味論의 動向 참조) 자신의 작업 원칙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多意語와 同形異意語의 처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의미론자와 사전 편찬자 간의 논란꺼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多意語 고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派生적인 多意도 중심적 의미소(意味素)의 역사적인 분기의 결과가 소멸되지 않고, 현재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변화의 과정은 현재의 多意間의 의미적 관계에 投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적 관계에는 比喩, 提喩, 換喩, 擴大, 縮小, 特殊化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휘의 구조는 語와 指示物의 관계와 語 상호간의 對立관계에서 규정되고, 그 관계에서 성립됨은 周知의 사실인데, 그 대립관계에는 語의 性質에 따라 여러 가지의 差異가 있다. 이는 국어 溫度어휘에서 그 체계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 온도 어휘는 8개어로서 춥다[寒]—덥다[暑], 차갑다[冷]—뜨겁다[熱], 서늘하다[涼]—따뜻하다[暖], 미지근하다[微溫]—뜨뜻하다[溫]와 같이 反意관계의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意味特徵은 ‘擴張對收縮’, ‘物理的溫度對生理的溫度’, ‘全體表現溫度對部分表現溫度’, ‘高溫對低溫’, ‘適度對過度’, ‘快適한溫度對不快適한溫度’로 잡을 수 있어 다시금 그 이분법(二分法)의 대립관계의 정연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상관체계는 味覺語에서도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의 미각어는 영어의 4종 일본어의 5종보다 많은 6종이며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어 미각어는 기본적인 미각어와 二次적인 미각어로 어군(語群)을 이룬다. 기본적인 미각어는 ‘달다·짜다·맵다’로서 調理상 꼭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二次적인 미각어인 ‘쓰다·시다·뽀다’는 우리들의 구미에 불쾌감을 주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국어사전에 ‘싱겁다’를 6味の 하나로 잡고 있으나, 이는 그 맛이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 쓰는 말

로서 본래의 미각어는 아니므로 바로 잡혀져야 한다.

味覺語는 기본적인 語群과 其他語群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前者는 前舌에서 後者는 後舌과 舌側에서 인지된다. 이것도 正五面體의 構造圖로서 설명하면 더욱 그 구조나 결합이 긴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관구조체계는 加熱料理動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리 동사 어휘는 ‘날 것’, ‘발효 시킨 것’, ‘加熱한 것’의 3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加熱요리어는 다시 1)열로만 하는 것, 2)水分을 매개로 하는 것 3)油(기름)을 사용하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모두 15개 어가 된다. 이것은 쌍육면체의 구조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의미특성은 ‘發散과 收縮’, ‘水性和 油性’, ‘直接과 間接’, ‘乾燥性和 濕潤性’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작업들은 1980년에서 1983년에 이루어졌으며, ‘溫度語彙’의 相關體系는 1980년에, ‘味覺語’는 1982년, ‘加熱料理動詞’와 ‘身體着脫語’의 構造體系는 1983년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다. 그후 행정보직을 맡아 이 작업을 계속 못했음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근자 ‘한국어 의미학회’의 발족으로 이 방면 학자들의 눈부신 업적이 빛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IV.

애초에 연구원에서 집필 의뢰가 왔을 때 사양하려고 했으나 학문하는 사람에게 나와 같은 길을 밟지 말기를 원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감히 수락했었다.

나는 主專攻을 정하는데 많은 방향을 했다. MIT의 ‘生成音韻論’의 창시자 Morris Halle교수는 대학자일뿐더러 대교육자라고 한다. 그는 학생이 연구하다 벽에 부딪히거나 연구상 고민이 있음을 보았을때는 ‘Come and talk to me’ 하며 상담해 주었다는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부럽기도 했다. 또한 일제 때에 이미 말한바 있는 森田선생이 3일의 연휴가 있을 때 關釜연락선(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가 걸림)을 타고 廣島大學의 자기 은사에게 가서 연구한 논문을 ‘브리핑’하고 온 것을 상기할 때 학문의 존엄성과 스승의 소중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또 하나는 학문을 하려면 일체 행정보직 같은 것은 말지 않았어야 한다는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된다. 아까운 정력과 시간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구질스러운 말들이 많았음에 양해를 바랄 뿐이다.